https://doi.org/10.5392/JKCA.2017.17.08.435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Empathy Rating Scale by a Third Party

김성지, 조성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Song-Ji Kim(songji0522@hanmail.net), Seong-Ho Cho(chopsy@catholic.ac.kr)

요약

본 연구는 타인평정 공감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비연구를 통해 개발된 15개의 예비 문항은 연구 1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공감의 시작', '공감의 과정', '공감의 결과'라는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유목화되었다. 연구 2에서는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및 판별분석이 시행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요인 모형에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고, 상관분석을 통해 진정성, 정서 명확성, 친밀감과는 정적 상관이, 불안 및 거부 애착과는 부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수렴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개발된 타인평정 공감 척도는 11개의 최종 문항과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척도가 갖는 의의와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공감 | 공감 평정 | 척도 개발 | 타인평정 공감 척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Empathy Rating Scale by a third party and examine the validity of the scal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ilot study, the study 1 focused on developing Empathy Rating Scale by a third party. From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a total of 15 preliminary items, three fators had been derived: 'Beginning of empathy', 'Process of empathy', 'Result of empathy'. The study 2 identified its validity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discriminant analysis. Those three factors indicated the reasonable fit index by confirmatory factor addition, this scale identifi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with authenticity, emotional clarity, and intimacy. On the other hand, it indicated a negative relation with anxiety attachment and rejection attachment. Therefor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is scale on a total of 11 item has a reliable convergent validity. Finally,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relation with future studies.

■ keyword : | Empathy | Empathy Rating | Development of Scale | Empathy Rating Scale by a Third Party |

I. 서 론

공감(共感)이란 타인의 정서적 상태와 경험을 이해하고 그것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1-3]. 타인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욕구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그가 처한 상황을 느끼는 정서적 감응 능력이 필수적이다. 조성호[4]는 인간 사회에서 공감이 결여된다면 무한 경쟁이 심화하여 인간에

접수일자 : 2017년 06월 30일
수정일자 : 2017년 07월 28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8월 09일
교신저자 : 김성지, e-mail : songji0522@hanmail.net

게 고립과 소외가 초래되고, 이러한 상황은 인간의 삶과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공감은 인간으로 하여금 협력과 애착,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생존의 기초이자 인간 사이에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5].

심리학에서는 공감이 개인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에 주목한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에 대해 지각하고 반응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이며, 비언어적인 측면의 이해까지도 포함하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다[6]. 또한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감정을 느껴보는 과정에서 인간 심리의 인지적, 정서적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공감을 어릴 때부터 중요한 대상인 부모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나는 정서조절 능력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고[7],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마음이론은 생리 심리학 연구인 거울뉴런의 발견과 더불어 공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상담 심리학 분야에서는 Rogers[8]가 처음으로 공감을 상담의 필요충분 조건의 하나로 제시한 이래, 이론적 접근을 막론하고 상담의 성과와 관련되는 중요한 치료적 요인으로 여겨왔다. 이후, 공감이 상담자가 갖추어야할 필수적인 태도이자 기술이며 상담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었고[9][10], 때문에 공감은 상담자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훈련 주제가 되어왔으며, 공감에 대한 이론과 측정 도구도 발달되어왔다.

Eisenberg[11]는 공감의 측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는데, 첫째 피험자가 실제 및 가상적 대상의 정서나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이야기 또는 장면에 대해 응답하는 방법, 둘째 공감이나 공감 능력에 대한 자기보고 방법, 셋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제 3자의 평가로 측정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 중 현재까지 공감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한 연구이다. 국내 공감 연구 또한 97%의 연구가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한 연구였다[12]. 자기보고식 척도는 공감에 대한 응답 수집과 채점이 용이하고 시간도 짧게 걸리며 다른 심리적 구성개념들과 양적비교가 용이하다는 여러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기보고식 척도는 공감 반응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기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감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을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기 어렵다. 공감에 있어서 여성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있고[13], 사회적 바람직성과는 반대로 덜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시도하거나 사회적 상황에 따른 억제가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 [14]에서 자기보고 방식은 실제 공감을 순수하게 측정해내기 어려울 수 있다.

공감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인 대인관계 반응성 지수(Interpersonal Reation Index: IRI)[15]의 경우는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이라는 4개 하위요인 중 '상상하기'와 '개인적 고통'이 실제 공감 반응이 아닌 고통과 관련한 자의식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16].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공감 척도인 발렛-레너드의 대인관계 척도(Barrett & Lennard Relationship Inventory: BLRI)[17]또한 공감 관계에서 의사소통적 측면을 응답하도록 하고 있어 공감 관계에 대한 자기인식을 측정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기보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Ickes[18]는 내담자의 보고와 상담자 추측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인 공감 정확도 측정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인지적 일치성만을 다루고 있어 실제 공감을 측정해 내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제시된 사진 장면을 통해 공감을 측정하는 방식인 다면적 공감검사(Multifaceted Empathy Test: MET)[19]와, 국내에서 개발된 정서인식력 검사[20]는 실제 공감장면을 조성하여 평가하지 못하고 있고, 이 또한 공감의 인지적 측면을 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제 3자 평가 방법은 타인의 공감반응을 제 3자가 평가하는 방식이다. 제 3의 평정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평정자의 훈련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관찰가능한 측면만을 측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에 개발된 타인평정 공감 척도에는 Elliott의 다차원적 공감반응척도(Multidimensional Response

Empathy Scale: MRES)[21]가 있는데, 상담자의 공감 반응 이외에 탐색의 영향력, 표현 허용하기 등 상담관계 및 성과를 평가하는 문항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보다는 상담 관계를 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이 공감의 측정 방법에 따라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공감 측정시에는 복수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것 일 수 있다. 또한 공감을 하는 사람과 공감을 받는 사람, 그리고 양자 간 의사소통 중에 누구의 심리를 어디까지 측정할 것인지 범위를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측정 대상과 범위에 따라 척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첫째 자기 보고식 척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타인평정 공감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둘째, 가상의 사진이나 이야기에 대한 공감반응이 아닌 실제 사례에 대한 공감반응을 사용하여 척도를 제작하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 공감하는 자의 관찰 가능한 내적 과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공감의 의사소통적 측면을 제외시킴으로써, 공감자 측면에서 일어나는 공감으로 측정범위를 한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인간의 기본적 정신 과정이자 심리치료의 중요한 치료 요인인 공감은 경험적 연구에 있어서 발전에 난항을 겪어왔다. 공감이 단일 차원으로 보기 어려운 복합 개념이므로[22] 어떤 요인을 중심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공감 측정 방식과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이다[23]. 결론적으로 현재는 공감을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구성개념으로 보고 있다[24-27]. 또한 공감의 의사소통적 요인, 동기적 요인 등이 포함된 복합적이고 순환적인 공감 모델이 제시되기도 하였다[28-31].

본 연구에서 개발하려는 타인평정 공감 척도 역시 공감하는 사람의 여러 심리적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척도에 포함될 공감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인지, 정서, 의사소통, 동기 및 복합적 요인으로 나누어 재정리하였다.

1. 공감의 인지적 요인

공감의 인지적 요인이란 타인의 정서 상태에 대해 인식과 변별, 추론, 이해와 같은 인지적 정신 과정을 말한다. 타인의 정서를 식별하는 '정서 재인'과 타인의 입장이 되어 그의 관점으로 타인의 생각과 정서를 추론하여 이해하는 '조망 수용', 타인의 내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등의 정신적 작업들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분리하고 경계를 자각하는 것이 포함되며, 주의 같은 단순한 인지에서부터 메타인지나 마음이론 같은 고차원적 정신기능에까지 관련 된다.

공감의 인지적 요인은 1934년 Mead[32]가 공감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주는 요소로 강조하면서 주목되기 시작했다. 그는 조망 수용을 통한 사회적 공감의 획득이 타인의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는 지적인 기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망 수용이란 '자기와 타인 사이의 상호관계를 타인의 눈을 통해 타인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능력'[33]을 말하고 이를 통해 개인은 타인의 지각적 경험과 활동을 추론할 수 있다[34]. Feshbach[28]는 '정서 재인' 개념을 '상대 타인에게서 발견되는 감정을 인지해 내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공감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다. Piaget[35] 또한 공감의 인지적 요인을 강조하였는데, 그는 아동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아중심성이 극복되고 탈 중심화가 이루어지는 7세경부터 타인의 조망 수용이 가능해지면서 공감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비교적 최근 이론인 마음이론은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이론인데, 마음이론의 하위 이론 중 '이론-이론'이 공감의 인지적 요인과 관련된다. '이론-이론'은 한 개인이 타인에 대해 이미 형성해 놓은 지식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추론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를 공감에 적용해 보면 공감이란 공감을 하는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사용하여 상대방이 어떤 정서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 예측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공감의 인지적 요인은 공감하는 자가 상대방의 경험과 심정에 대해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공감의 정서적 요인

공감의 정서적 요인은 공감 대상에 대해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서[36][37], 공감 대상자와 동일하거나 그에 부합하는 정서를 경험하는 것[38], 정서가 공유된 느낌과 유대감 등 타인 지향적 정서들을 느끼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1907년 Lipps[39]는 공감의 최종 결과를 '공유된 느낌'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공유된 느낌을 발생시키는 기제를 인지능력에 두지 않고 정서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지금까지 이어져 '공유된 정서', '대리적 정서'로 언급되고 있고, 전의식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일치 현상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때문에 Hoffman[40]은 공감을 '비자발적으로, 때로는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타자의 감정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현재는 이것을 공감 초기 단계인 '정서 전염'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정서적 공감의 하위요소에 포함시키고 있다[41]. Kohut은 '대리적 정서', Rogers는 'as if '라는 표현을 통해 공감의 느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인지적 능력의 수반을 전제로 설명하였다. 공감의 정서적 요인 중 '공명'이라는 개념은 공감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적인 일치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Reik[42]는 공명을 '상대방을 내사한 결과, 그 사람에 대해 내면화된 느낌과 자기 자신 속에서 초래된 경험 및 상상간의 반향'으로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감의 정서적 요인은 공감하는 자가 상대방의 심정과 비슷하거나 부합되는 느낌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

3. 공감의 의사소통적 요인 및 동기적 요인

Truax[43]등은 공감을 '상대에 대해 이해한 바를 의사소통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Rogers[44]도 '공감에는 당신이 감지한 그의 세계를 전달해 주는 것도 포함된다'고 언급할 만큼 공감은 타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라는 관계양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표정, 억양, 시선, 동작 모방 등 공감시 발생하는 비언어적 행동에 의한 소통이 강조되기도 하였으며[45], 공감 교육 및 훈련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공감의 동기적 요인은 상대방에게 정서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하려는 동기[46]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동참하려는 태도[47], 곤경에 처한 타인과 접촉하려는 의지[48]로부터 도움 행동에 이르게 되는 모든 동기적 측면을 지칭한다. 공감은 정서 전염같은 자동적 과정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고 의식적인 인지적 추론과 더불어 정서 체험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공감의 동기적 요인은 중요한 선행 요인이자 인지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공감의 의사소통적 요인은 공감자가 공감한 바를 상대방과 공유 및 조율하는 것을 의미하여, 동기적 요인은 공감을 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4. 공감의 복합 요인 및 단계적, 순환적 모델

Feshbach, Hoffman, Davis, Barrett-Lennard등은 앞에서 언급된 요인들이 복합적인 과정을 이루어야 공감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며 공감의 복합모형 및 단계모형을 제시하였다.

Feshbach[28]는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식별하거나 분류하는 능력, 타인의 관점과 역할을 취해보는 능력, 정서적 감응성으로 구성된 복합 모형을 제시하였고, Hoffman[29]또한 발달 수준에 따라 공감적 각성상태가 달라지는 6가지 유형의 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Davis[15]는 공감 연구들의 리뷰를 통해 공감을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으로 구성된 복합적 개념으로 보고 이 모델을 바탕으로 '대인관계 반응성 지수'라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Barrett-Lennard[31]는 공감을 연속적이고 순환적으로 전개되는 흐름으로 보고, 공감적 주의집중, 공감적 공명, 표현된 공감, 이해받은 정도의 지각, 공감 받은 정도의 피드백이라는 5단계로 구성된 관계적이며 순환적인 공감모형을 제시하였다. 앞서 대인관계 반응성 지수를 개발한 Davis[30]는 이후 1996년에 복합요소적 과정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공감을 선행요인, 과정, 결과(개인내적, 대인적)라는 과정 모형으로 구성하고 각 단계에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동기적 요인들을 배치시킴으로써, 보다 명료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공감에 대한 연구는 공감을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동기적 요인으로 단순 분류하지 않고 복합개념 혹은 과정적 개념으로 보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본 연구자는 Davis의 복합요소적 과정모형 이론이 공감의 과정적 흐름에 공감의 요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감을 설명하는데 타당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직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한 공감 척도가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공감 척도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기 보고식 척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타인평정 공감척도 개발을 지향하였으며, 공감을 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공감 과정을 명료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측정 범위를 제한하였다. 연구 1은 타인평정 공감 척도 개발연구이고, 연구 2는 개발된 타인평정 공감 척도에 대한 타당화 연구이다.

Ⅲ. 연구 방법

연구 1.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개발

연구 1에서는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예비문항을 개발 및 구성하고, 평정 자료 수집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타당성 평가를 거친 4개의 시나리오를 일반 성인 30명에게 제시하여 시나리오 속 주인공에 대한 공감 응답을 녹음하였고, 이에 120개의 평정 자료가 도출되었다. 이를 4명의 평정자에게 제시한 후, 예비문항을 사용하여 공감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4명의 평정자에 의한 평정 결과에 대해 문항분석, 신뢰도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인평정 공감 척도에 적합한 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1. 연구 방법

1) 예비연구

예비연구는 연구 1에서 평정될 공감 응답을 수집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제작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10명의 대학원 석박사 재학생들에게 대학 생활 및 일반 생활에서 기본정서인 슬픔, 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였다. 슬픔 2개, 화 4개, 두려움 4개 총 10개의 사례를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50명의 일반 성인에게 적절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적절성 평가는 시나리오 주인공이 경험한 정서와 정서의 강도, 주인공이 겪은 상황과 정서의 부합성, 상황의 구체성과 생생함을 7첨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것이다. 결과에 대한 기술 분석 후, 시나리오 주인공의 정서가 분명히 확인되고 내용과 정서의 부합성이 높은 4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하였고, 그중 2개를 [표 1]에 제시하였다. 4개의 시나리오를 새로운 30명의 일반 성인에게 읽도록 한 후, 시나리오 내용속의 주인공의 마음이 어떠했을지에 관한 공감반응을 요청하여 이를 녹음하였다. 이와 같이 4개 시나리오에 대한 30명의 녹음된 공감반응을 축어록으로 작성함으로써, 120개의 공감 반응이 도출되었다.

표 1. 최종 선정된 시나리오의 예

번호	정서	시나리오 내용
1.	화	대학생 강윤이는 동아리 송년모임에서 재밌게 놀 기대를 하며 바쁜 학기말 일상을 견뎠다. 하지만 과외 학생이 시간을 한사코 조정해주지 않아, 송년회가 한창 재밌을 시간에 과외를 하러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학생에게 가니 학생은 잠을 자고 있었고 깨워서 의자에 앉혀야 했다. 학생은 5분 정도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겨우 책을 폈다. 지난시간에 내준 숙제는 기억조차 못했고, 복습부터 해야 진도를 나갈 수 있다고 하자, 학생은 신경질적으로 책장을 넘긴다. 강윤이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2.	불안	김과장은 전자회사 재직중이다. 연초에 있었던 '조직에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는 CEO의 신년사 때문에 회사내에 구조조정이 있을거란 소문이 파다했다. 오늘 오전에 팀회의가 갑자기 취소되었고, 팀장이 박차장을 불러 회의실에서 개별면담을 하였다. 박차장이 내일 일자로 지방의 업무혁신팀으로 발령이 났다고 한다. 업무혁신팀은 해고대상자들을 모아놓고 굴욕적인 업무를 주어 스스로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부서라고 들었다. 현재 팀으로 이동해온지 4개월 밖에 되지 않는 김과장은 구조조정이 앞으로 계속 될거라는 소문에 마음이 불안해졌다.

2) 문항 개발 절차

문항 개발에서는 이론가들의 다양한 공감개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념 주도적 방식과 자료 주도적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개념 주도적 방식은 기존의 여러 이론가와 연구자들의 공통 개념인 공감의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 의사소통적 요인, 복합적 요인, 동기적 요인을 검토하여 문항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자가 개발하려는 타인평정 공감 척도는 공감을 하는 사람의 공감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이므로, 위의 개

념들 중에서 공감을 하는 사람과 공감을 받는 사람간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설명하는 의사소통적 요인은 문항 구성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동기적 요인은 공감 태도로 볼 수도 있지만 공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식적으로 지속 및 상기시키는 인지적인 특성이 있다. 때문에 본 연구자는 동기적 요인을 인지적 요인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지적 요인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Davis[30]의 과정모형을 적용하여, 기존의 인지적, 정서적 요인들을 과정적 모형으로 재분류하였다. 따라서 공감의 선행요소, 과정, 결과로 구성된 과정모형의 각 단계에 인지적 정서적 요인들을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모형의 개념적 틀을 기초로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공감의 정의와 예들을 기존의 공감연구 문헌에서 추출하였다.

최초의 문항을 수집, 구성하기 위해 공감을 주제로 다루거나 적어도 논의의 한 가지 주요 측면으로 고려한 문헌들을 검토하여 공감의 실제 예들을 수집하였다. 정신분석 이론, 인간중심 이론, 기존 공감 척도와 관련된 문헌 및 최신 공감연구가 발표된 231개 문헌에서 총 281개의 공감의 예를 수집하였다. 281개 예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Davis의 과정모형인 선행요인, 과정, 결과의 3개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중첩되거나 유사한 예들을 함께 묶어 3개 영역 15개의 공감의 예로 유목화하였다. 각 영역당 5문항씩 총 15개로 구성된 예비 문항은 [표 2]와 같다.

예비 연구에서 도출된 120개 공감 반응에 대해 위의 15개 예비 문항을 사용하여 평정자 4명으로 하여금 공감 응답들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정자 훈련은 Herman[49], 박진희[50]의 연구를 바탕으로 1단계 타인평정 공감 척도에 대한 지침교육, 2단계 평정 훈련, 3단계 일치도 훈련의 과정으로 20시간 이상 실시하였다. 부록 1에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평정 지침을 제시하였다.

120개 공감 응답에 대해 평정자들이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예비문항의 문항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 평정자

본 연구자를 포함한 4명의 평정자는 심리학 석사 이상의 심리상담자였고, 이중 3명은 상담 경력 평균 10년 이상의 1급 심리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나머지 1명은 경력 3년의 2급 심리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였다.

표 2.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예비문항

번호	문항내용
1.	화자는 상대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정서를 느낀다.
2.	화자는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한다.
3.	화자는 상대방에 대한 염려, 연민 혹은 정서적 유대감을 느낀다.
4.	화자는 일시적으로 자신을 상대방인 것처럼 여기고 그의 경험을 상상한다.
5.	화자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6.	화자는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해가면서 상대가 어떠했을지 추측한다.
7.	화자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원인을 알아차린다.
8.	화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신체적 · 감각적으로 반응하거나 묘사한다.
9.	화자는 상대방의 경험을 마음속으로 따라가 봄으로써 그를 이해한다.
10.	화자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에 반응하려는 동기가 높다.
11.	화자는 상대방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의미나 정서를 감지한다.
12.	화자는 상대방의 감정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13.	화자는 상대방의 경험을 상상하면서 그와 유사한 감정을 떠올린다.
14.	화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려고 애를 쓴다.
15.	화자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 부합하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4) 연구 도구 및 분석 방법

15개의 예비 문항에 대해 평정자가 응답한 결과에 대한 문항 분석, 문항간 및 문항-총점간 상관 정도, 변별도 분석,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문항이 있는지 SPSS 20.0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예비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0.0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방법으로 주축 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과 사각회전(Promax)을 사용하였다. 고유치(Eigenvalue)와 스크리(scree) 도표, 각 문항의 공통분, 적합도 지수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요인수를 정하고 요인 부하량, 내용 분석을 통해 각 요인의 명칭 및 최종 문항을 확인하였다.

2. 결과

1) 척도의 문항분석

(1) 평정자간 일치도

4명의 평정자들간의 평가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평정자간 급내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15문항의 응답에 대한 4명의 평정자간 급내상관계수는(ICCs) 유의 확률 .000에서 .94로 나타났다. 급내상관계수 값이 .75이상일 때 좋은 신뢰도[51]라 볼 수 있으므로 .94라는 결과는 평정자들 간의 응답 일치도가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2) 문항 간 상관 및 문항-총점 간 상관

문항 분석은 문항간 상관과 문항-총점간의 상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문항-총점간 상관에서 문항 15가 .25로 나타나 나머지 문항들이 측정하는 개념과 상관이 낮다고 판단되어 최종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문항간 상관에서 높은 상관을 보인 문항 1과 2(.78), 문항 5와 10(.77), 문항 9와 14(.77)의 경우,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복되는 문항의 삭제를 더 검토하기 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문항 변별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문항의 변별도

문항의 전반적인 변별도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은 문항의 평균이 극단적이거나 표준편차가 매우 작은지를 조사하는 것이다[52]. 송보라와 이기학[53]은 평균이 1.7 미만, 4.3초과일 경우와, 표준편차가 0.09미만은 변별도를 저해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평균은 .77 ~ 2.60으로 분포하고 있고, 척도가 0점 ~ 4점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언급된 기준으로 고려해볼 때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문항은 없었다. 표준편차 또한 .76 ~ 1.13으로 전반적으로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변별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표 3]에 문항 통과율을 사용한 문항 변별도 지표(D값)를 산출하였다. D값이란 문항 변별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로서 각 문항에서 0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해당 문항을 통과한 경우로 보고,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점수상 상위, 중위, 하위 세 집단이 각각의 문항을 통과한 빈도를 계산하여, 상위집단의 문항 통과 빈도수에서 하위집단의 문항 통과 빈도수를 뺀 값을 말한다.

표 3. 문항 변별도(D)와 공감평정총점 상하위 집단의 점수 범위별 분포

문항 번호	문항 변별도 D (%)	점수 집단	공감 평정 점수(x)의 범위당 빈도수				
			0	0<x	≤11<x	≤22<x	≤33<x ≤4
1	15.0	상위	0	0	3	19	18
		하위	0	7	16	13	4
2	10.0	상위	0	0	2	25	13
		하위	0	9	19	11	0
3	45.0	상위	0	1	7	27	5
		하위	5	19	14	2	0
4	25.0	상위	0	0	6	27	7
		하위	0	18	19	3	0
6	45.0	상위	1	18	5	8	8
		하위	4	29	5	2	0
7	15.0	상위	0	0	6	21	13
		하위	0	12	17	11	0
8	62.5	상위	3	8	15	8	6
		하위	27	10	0	3	0
9	37.5	상위	0	0	12	20	8
		하위	0	19	21	0	0
10	7.5	상위	0	0	4	29	7
		하위	0	9	28	3	0
11	17.0	상위	0	3	6	21	10
		하위	0	17	14	9	0
12	37.5	상위	0	0	14	24	2
		하위	1	23	13	3	0
13	37.5	상위	0	0	5	26	9
		하위	0	16	20	4	0
14	42.5	상위	0	2	9	21	8
		하위	0	29	11	0	0

그 결과 상관이 높았던 문항들 중 문항 5는 5%의 매우 낮은 변별도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최종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문항 변별도는 50%에 가까울수록 적당한 변별도라고 볼 수 있는데[54], 문항 간 상관이 높아 제외 후보였던 문항 2와 문항 10도 변별도가 각각 10%, 7.5%로 낮은 편에 속한다.

문항 2와 문항 10의 변별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표 3]에 문항별로 총점이 높은 상위 30%와 총점이 낮은 하위 30%의 점수 범위별 빈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제시하였다. 문항 2는 공감 평정 총점의 상위 집단의 95%가 2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받은 반면, 하위집단은 27.5%만이 2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받아 상하위 집단의 변별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항 10은 상관 높았던 문항 5가 이미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위별 빈도를 보았을 때, 상위 집단의 90%가 2점을 초과하는 점수에 분포하고, 하위집단은 동일한 영역에서 7.5%에

불과하여 점수의 상하위 집단을 잘 변별하고 있다. 따라서 문항 2와 문항 10은 삭제하지 않고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문항 1, 문항 9, 문항 14는 문항 변별도가 높고, 범위별 빈도에서도 높은 변별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까지의 잠정적인 최종 문항으로 13개 문항을 채택하였다.

(4)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문항 분석을 통해 문항 5와 문항 15를 제외한 후, 13개의 잠정적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KMO(Kaiser-Meyer-Olkin)값은 .881로 일반적인 기준치가 .80이상이므로 좋은 편이었으며, Bar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는 χ^2= 3464.165, p<.001로 요인구조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본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크리 도표상 3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통성 값에서 문항 11이 .30으로 나타나 공통성 값이 .40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통계적 기준에 따라 최종 문항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요인 부하량이 .40이상이면서, 교차요인 부하량이 .10이상 차이나는 문항을 최종문항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교차요인 부하량 차이가 .007인 문항 13이 최종 제외되었다. 이에 [표 4]에서 문항 11과 문항 13을 제외한 11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3가지 하위 요인의 명칭은 Davis의 '공감의 선행요인', '과정', '결과'를 다소 수정하여 '공감의 시작', '공감의 과정', '공감의 결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 지수는 .73 ~ .86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각 요인에 소속된 문항들은 해당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하위 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문항-총점간 상관	내적 합치도
공감의 시작	9	.888			.76	.86
	14	.878			.79	
	7	.845			.53	
	10	.702			.79	
공감의 과정	6		.840		.52	.73
	8		.805		.51	
	12		.715		.55	
	4		.491		.78	
공감의 결과	1			.994	.56	.79
	2			.749	.68	
	3			.507	.69	
고유치		5.871	1.778	1.049		.86
설명 분산		45.15%	13.68%	8.07%		
누적 분산		45.15%	58.83%	66.91%		

표 5.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하위요인간 상관

구분	공감의 과정	공감의 결과	공감 평정 전체
공감의 시작	.45	.61	.84
공감의 과정		.43	.78
공감의 결과			.76

p<.05, p<.01

표 6.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최종내용과 평균 및 표준편차

요인	번호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공감의 시작	9.	화자는 상대방의 경험을 마음속으로 따라해 봄으로써 그의 생각과 정서를 이해한다.	2.60	.90
	14.	화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려고 애를 쓴다.	2.29	.88
	7.	화자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원인을 알아차린다.	1.49	.99
	10.	화자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에 반응하려는 동기가 높다.	1.06	1.10
공감의 과정	6.	화자는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해가면서 상대가 어떠했을지 추측한다.	.77	1.13
	8.	화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신체적 · 감각적으로 반응하거나 묘사한다.	2.18	.84
	12.	화자는 상대방의 감정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48	1.00
	4.	화자는 일시적으로 자신을 상대방인 것처럼 여기고 그의 경험을 상상한다.	1.48	1.07
공감의 결과	1.	화자는 상대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정서를 느낀다.	1.88	.469
	2.	화자는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한다.	1.67	.841
	3.	화자는 상대방에 대한 염려, 연민 혹은 정서적 유대감을 느낀다.	1.32	1.06

[표 5]에는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하위 요인간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3개의 하위요인은 공감 평정 전체

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76 ~ .84). 각 하위 요인 간에는 보통의 상관(r=.43 ~ .61)을 보임으로써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각 요인은 어느 정도의 내용을 공유하면서도 독립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분석과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최종 선정된 3개 요인 11개 문항의 타인평정 공감 척도는 [표 6]과 같다.

연구2.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타당화

연구 2에서는 타인평정 공감 척도에 대한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최종 채택된 11개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10명의 1급 상담심리사들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타인평정 공감 척도와 관련한 기존 척도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개발된 타인평정 공감 척도로 판별한 결과와 공감 관련 척도로 판별한 결과를 비교하여 개발된 척도의 판별력을 확인 하였다.

1. 연구 방법

1) 확인적 요인분석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최종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AMOS 20.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였으며, 결측치 처리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P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 터거-루이스 지수(TLI), 절대적합지수(GFI), 비교적합지수(CFI)를 선택하여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TLI, GFI, CF1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이며, RMSEA는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면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면 보통의 적합도로 간주한다[55][56].

2) 연구 대상

내용 타당도 설문에 참여한 대상은 평균 12년 이상의 상담 경력을 가진 1급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10명이고, 수렴 타당도 검증에 참여한 대상은 2급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10년 이상 상담경력이 있으며 상담 심리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2명의 상담자였다.

3) 측정 도구

(1) 내용 타당도

10명의 1급 상담심리사에게 개발된 타인평정 공감 척도 문항을 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해 공감 평정 문항으로서의 적절성 정도, 공감 평정에 있어서 문항의 중요성 정도, 실제 공감 과정과의 관련성 정도, 특정 이론에 편향된 정도, 실제 공감상황에서 관찰 가능한 정도에 대해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수렴 타당도

120개 공감반응 중 20개를 무선적으로 추출하여, 2명의 새로운 평정자에게 제시하였다. 개발된 타인평정 공감 척도와 개념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른 측정도구로 평가하게 하여, 개발된 척도로 평가한 결과들과의 상관을 비교함으로써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① 진정성 척도(Korean Authenticity Scale: KAS)

홍정순[57]이 개발한 척도로서 일치성, 비편향적 지각, 진심어린 태도,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척도이다. 진심어린 태도 요인 6문항이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공감의 동기적 요인과 유사한 개념을 반영하므로 본 연구에서 평정자 입장의 질문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개발 당시의 내적 합치도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74였다.

② 친밀감 척도(Intimacy Scale: IS)

본래 Sternberg[58]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 척도(The Triangle Theory of Love Scale)의 하위 요인인 이성간 친밀감을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척도이다. 공감적 각성과 관심이 친사회적 행동 및 의지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59] 친사회적 정서인 친밀감 척도를 수렴 타당도 검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권석만[60]이 번안한 친밀감 영역의 15개 문항 중 7개 문항만

을 사용하였다. 이는 확인할 구성개념이 평정자가 평가 시에 지각한 친밀감이므로 상호작용적 친밀감 지각 문항을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7개 문항을 평정자 입장의 질문으로 수정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최지영[6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였고, 본 연구에서는 .71이었다.

③ 상위 기분 척도(Trait Meta Mood Scale: TMMS)

Salovey[62]등이 개발한 특질 상위 기분 척도(Trait Meta Mood Scale: TMMS)를 이수정과 이훈구[63]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서 인식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주의 요인, 느낌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명확성 요인, 정서 개선의 정도를 측정하는 정서 개선에 대한 믿음 요인,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감을 정서지능의 하위 구성요소로 보는 Salobay[64]등은 자신의 기분이나 정서에 대한 사고와 감정을 뜻하는 상위 기분 또한 정서지능과 관련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감수준이 높은 경우 상위 기분 수준도 높을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수렴타당도 검증 척도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 인식 명확성 요인 11문항과 정서 주의를 측정하는 5개 문항을 평정자 입장의 질문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장정주[65]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 계수가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77이었다.

④ 대인관계 질문지(Relationship Questionnaire: RSQ)

Hazan과 Shaver[66]의 성인애착 척도, Bartholomew와 Horowitz[67]의 성인 애착 척도-관계 질문지(Relationship Questionnaire), Collins와 Read[68]의 성인애착 질문지(Adult Attachment Scale)를 참고하여 Griffin과 Bartholomew[69]가 제작하고 장휘숙[7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RSQ는 안정 애착, 의존 애착, 거부 애착, 두려움 애착의 네 가지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이며, 도구 개발 당시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75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결과와 배치되고 친밀감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부 애착 5문항과 두려움 애착 4문항, 총 9문항을 평정자 입장의 질문으로 수정하여 부적 상관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0이었다.

2. 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최대우도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그림 1]에 제시한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3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294.240 df=33, GFI .925, TLI .923, CFI .954, RMSEA .091로 나타났다. GFI, TLI, CFI가 .92이상으로 높은 적합도를 나타냈고, RMSEA는 .091로서 매우 좋은 적합도의 기준인 .08이하에는 미치지 못하나 .10미만이므로 수용 가능한 보통의 적합도 지수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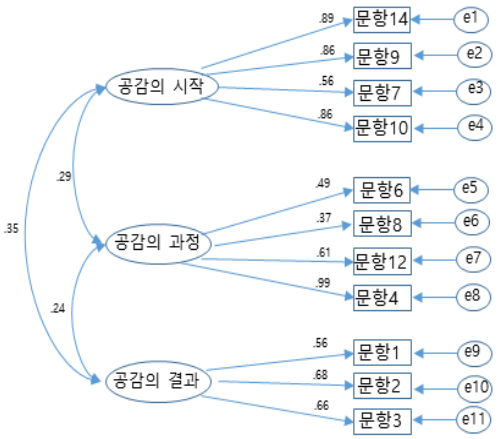

그림 1.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3요인 모형(표준화 계수)

제작된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내용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에 참여한 10명의 상담전문가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평균연령은 42.2세, 여성 7명, 남성 3명, 학력으로는 석사 1명, 박사과정 2명, 박사과정 수료 5명, 박사 2명이었다. 선호하는 주된 상담 이론은 정신역동적 접근 1명, 인간중심 접근 2명, 게슈탈트 접근 1명, 인지행동적 접근 1명, 절충적 접근이 5명이었고, 상담 경력은 평균 12.4년이었다.

표 7. 타인평정 공감 척도에 대한 상담전문가들의 내용 타당도 평가

문항 번호	적절성	중요도	공감 관련성	이론 중립성	관찰 가능성
1	5.8	5.6	6.0	7.4	5.5
2	6.4	6.3	6.2	6.4	6.1
3	4.7	4.6	4.7	5.9	5.0
4	6.4	6.4	6.4	5.9	5.7
6	5.5	5.5	5.2	6.0	5.6
7	5.7	5.6	5.5	5.5	5.6
8	5.4	5.2	5.6	5.8	6.2
9	6.4	6.4	6.6	6.0	6.2
10	5.3	5.2	5.6	6.2	5.5
12	5.0	4.5	5.1	6.0	5.5
14	6.5	6.6	6.3	6.2	5.8
문항 평균	5.2	5.6	5.7	6.1	5.7

[표 7]에 제시되었듯이 통계적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문항으로 선정된 문항들의 내용 타당도 즉, 적절성, 중요도, 실제 공감 관련성, 이론 중립성 및 관찰 가능성에 대한 응답의 평균은 5.2 ~ 6.1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 전문가들이 제작된 문항이 공감 평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120개 공감 응답 중 20개를 무선적으로 선정한 후 새로운 2명의 평정자들에게 평가를 하도록 하여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과 같이 공감과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인 진정성 척도, 상위 기분 척도, 사랑의 삼각형 척도와의 상관이 .76, .81, .82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질문지의 거부, 두려움 애착 척도와는 -.58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타인평정 공감 척도는 유사한 다른 척도와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수렴 타당도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

측정 도구	사용된 하위요인	공감 평정과의 상관(r)
진정성 척도	진심어린 태도	.76
상위 기분 척도	정서 명확성	.81
사랑의 삼각형 척도	친밀감	.82
대인관계 질문지	거부, 두려움 애착	-.58

p<.01, p<.001

20개의 공감 응답에 대해, 개발된 타인평정 공감 척도로 평가한 상위 점수 30%와 하위 점수 30%에 대한 판별력과, 수렴 타당도에 사용한 척도인 공감 유사 척도들로 평가한 상하위 점수 판별력을 [표 9]에 비교 분석하였다.

두 가지 판별 분석 모두 공감 총점의 상하위 두 집단을 잘 판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결과가 Wilks' Lamda 값이 더 작고 정준 상관계수가 더 크며 유의 확률이 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개발된 타인평정 공감 척도가 공감 응답에 대한 구분을 더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수렴 타당도 검증에 본 공감 관련 척도들을 사용했던 것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표 9. 타인평정 공감 척도와 유사 공감 척도의 판별력

	Wilks' Lamda	F	유의 확률	정준 상관계수
타인평정 공감 척도	.176	46.662	.000	.907
수렴 타당도 검증 척도	.206	27.112	.008	.891

p<.01, p<.001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감 측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타인평정 공감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Davis[30]의 공감의 선행요인, 과정, 결과개념을 토대로 타인평정 공감 척도를 개발하여 요인 구조를 확인하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수렴 타당도 검증, 판별력 비교분석으로 타당화 작업을 하였다. 먼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15개 예비문항을 구성한 후, 120개 공감 응답에 대해 4명의 훈련된 평정자로 하여금 평정하게 하였다. 평정 결과에 대한 요인 분석과 신뢰도, 문항 분석을 통해 11개 문항을 최종 선정하였고, 3개 요인을 '공감의 시작', '공감의 과정', '공감의 결과'로 명명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120개 공감 반응중 무선적으로 20개를 선정하였다. 새로운 평정자로 2명으로 하여금 진정성 척도와 상위 기분 척도, 친

밀감 척도 및 대인관계 질문지로 평정하도록 하여,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점수와의 상관을 분석하여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판별력 비교분석을 통해, 타인평정 공감 척도가 기존의 공감 유사개념의 척도들 보다 공감 평정에 대한 판별력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타인평정 공감 척도는 '공감의 시작', '공감의 과정', '공감의 결과'라는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감의 시작' 요인은 공감을 하고자 하는 의도(문항9, 문항 14, 문항 10)와 공감을 유발하는 사회적 상황의 지각(문항 7)을 포함한다. '공감의 과정' 요인은 인지적 과정과 정서적 과정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지적 과정에는 상상과 추측(문항4, 문항 6)이, 정서적 과정에는 신체 반응 및 정서 전염(문항 8, 문항 12)이 포함된다. 마지막 '공감의 결과' 요인에는 정서 이해(문항 2)라는 인지적 결과와 정서 공유와 유대감(문항 1, 문항 3)이라는 정서적 결과가 포함됨으로써 공감의 전 과정에 대한 적절한 개념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척도와 기존 척도들 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본 척도는 공감을 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공감의 시작과 과정, 결과라는 과정적 모형을 가지고 있다. Barrett-Lennard[31]의 공감 모형 또한 5단계 모형, 즉 공감적 주의집중, 공명, 표현된 공감, 지각된 공감,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과정적 개념이지만, 공감을 하는 자와 공감을 받는 자의 상호작용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이를 통해 개발된 공감척도 역시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문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공감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공감만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상호작용의 측면을 배재하였다. 이로써 공감자 측면의 공감 과정을 순수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타인평정 척도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자기보고식 척도에서 일어나는 주관적 왜곡이 적고, 제 3자의 눈으로 객관적 평가를 가능케 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감 측정의 객관성을 강조했던 Ickes[18]의 정확공감의 경우도 제3자에 의해서 평가되는 형식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와 동일하나, 평가 항목이 인지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어 공감을 정확하게 측정해낸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척도가 기존 척도와 또 다른 점은 척도의 개발 과정에서 평정 대상이 되는 공감 반응들을 실제 사례에서 도출했다는 점이다. 즉, 수집된 일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시나리오에 대해 성인 30명이 실제로 공감한 반응을 사용하여 개발된 척도이므로 보다 높은 타당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확인적 요인 분석 및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개발된 타인평정 공감 척도가 적절한 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3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보여주었다. 이는 세 개의 요인을 공감 평정이라는 개념의 하위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또한 진정성 척도의 하위요인인 진심어린 태도와, 친밀감 척도, 상위 기분 척도의 하위 요인인 정서인식 명확성 요인과 정서주의 요인이 평정 결과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한편 대인관계 질문지의 거부 애착, 두려움 애착 요인과의 부적 상관이라는 결과를 통해 개발된 타인평정 공감 척도가 공감 하는 사람의 공감 수준을 제 3자의 평가를 통해 잘 변별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타인평정 공감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이론들을 조사하여 예비 문항을 선정하였으나, 공감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지는 못할 수 있다. 또한 공감자 측면의 내적과정에 한정하였으므로 개념정의에 따라 공감의 전체 과정에 대한 척도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감과 공감 평정의 개념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감 측정의 범위를 변경 및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척도는 타인평정 척도이므로 공감에 대한 주관적 왜곡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평정자 훈련이 잘 되어야만 신뢰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부록 1에 제시된 평정지침을 충분히 숙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찰에 의한 평가가 아닌 실제 공감자가 경험하는 내적 과정을 모두 측정하기에 본 척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척도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거나, 함께 다중양식으로 사용한다면 공감에 대한 측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타당화 작업에 사용되었던 진정성 척도, 상위 기분척도, 친밀감 척도 및 대인관계 질문지는 자기보고식 척도였다. 이를 타인평정 공감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위해 원 개념을 최대한 유지한 채, 평정 문항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평정 척도를 사용하여 타당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다 다양한 관련 개념의 척도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척도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공감을 하는 사람의 심리에 한정하여 척도의 문항을 구성하였으므로 공감의 상호작용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척도가 가지는 포괄성의 단점을 극복하였다. 동시에, 기존 척도들이 가지는 인지적, 정서적 요인 문항들의 단순 나열에서 벗어나 공감의 과정적 흐름 속에 요인들을 배치시킨 척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타당화 작업을 통해 기존의 자기보고식 척도와 더불어 공감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므로, 향후 공감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1] J. Decety and J. Grezes, “The power of simulation: imagining one′s own and other′s behavior,” Brain research, Vol.1079, No.1, pp.4-14, 2006.

[2] N. Eisenberg, “Emotion, regulation, and mor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51, No.1, pp.665-697, 2000a.

[3] T. Singer, “The social neuroscience of empathy,”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1156, pp.81-96, 2009.

[4] 조성호, “공감의 이해,” 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학생생활상담, 제22권, pp.5-31, 2004.

[5] S. D. Preston and F. B. M. De Waal, “Empathy: Its ultimate and proximate bas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Vol.25, No.1, pp.1-20, 2002.

[6] M. Pines and M. Marrone, “Sensitive responsiveness,” Marrone(eds.) *Attachment theory and the Psychoanalytic process,* Whurr Publishers, 2003.

[7] P. Fonagy, M. Steele, H. Steele, T. Leigh, R. Kennedy, G. Mattoon, and M. Target, *Attachment theory,* NY. Analytic Press, 1995.

[8] C. R. Rogers,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 pp.95-103, 1957.

[9] A. F. Carlozzi, K. S. Bull, G. T. Eells, and J. D. Hurlburt, “Empathy as Related to Creativity, Dogmatism, and Expressiveness,” The journal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and applied, Vol.129, No.4, pp.365-373, 1995.

[10] S. A. Peabody and C. J. Gelso, “Countertransference and empathy: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two divergent concept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9, No.3, pp.240-245, 1982.

[11] N. Eisenberg and R. Lennon, “Sex differencess in empathy and related capacities,” Psychological Bulletin, Vol.94, pp.100-131, 1983.

[12] 김은하, “상담학에서 공감 연구에 대한 고찰: 국내 주요 상담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4권, 제5호, pp.2851-2867, 2013.

[13] M. L. Hoffman,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14] S. D. Hodges and D. M. Wegner, *Empathy accuracy*, New York, US: Guilford Press, 1997.

[15] M. H. Dav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Vol.10, p.85, 1980.

[16] S. Baron-Cohen and S. Wheelwright,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f high-functioning autism, and no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 Vol.34, pp.164-175, 2004.

[17] G. T. Barrett-Lennard, *Dimensions of perceived therapist response related to therapeutic change*, Doctoral disseration, University of Chicago, 1959.

[18] W. Ickes, *Everyday mind reading: Understanding what other people think and feel,* Prometheus Books, 2003.

[19] I. Dziobek, K. Rogers, S. Fleck, M. Bahnemann, H. R. Heekeren, O. T. Wolf, and A. Convit, "Dissociation of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in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using the Multifaceted Empathy Test (MET),"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Vol.38, No.3, pp.464-473, 2008.

[20] 이수정, "문제해결과제를 이용한 정서인식능력 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5권, 제3호, pp.65-86, 2001.

[21] R. Elliott, H. Filiporvich, L. Harrigan, J. Gaynor, C. Reimschuessel, and J. K. Zapadka, "Measuring response empathy : The development of multicomponent rating scal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129, pp.379-387, 1982.

[22] L. S. Greenberg and R. Elliott, *Empathy reconsidered: New directions in psychotherap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7.

[23] R. Elliott, A. Bohart, J. Watson, and L. S. Greenberg, "Empathy," Psychotherapy, Vol.48, No.1, pp.43-49, 2011.

[24] E. Blake and T. Gannon, "Social perception deficits, cognitive distortions, and empathy deficits in sex offenders: A brief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Vol.9, pp.34-55, 2008.

[25] W. D. Pithers, "Empathy: Definition, enhancement, and relevance to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14, pp.257-284, 1999.

[26] M. H. Davis,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ty and Social Psychology, Vol.44, pp.113-126, 1983a.

[27] C. A. Williams, "Biopsychosocial elements of empathy: A multidimensional model,"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Vol.11, pp.155-174, 1990.

[28] N. D. Feshbach, "Empathy in children: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Counseling Psychologist, Vol.5, pp.25-30, 1975.

[29] M. L. Hoffman, "Developmental synthesis of affect and cogni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altruistic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11, pp.607-622, 1975.

[30] M. H. Davis,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Boulder,CO: Westview Press, 1996.

[31] G. T. Barrett-Lennard, "The empathy scale : Refinement of a nuclear concep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8, pp.91-100, 1981.

[32] G. H. Mead,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Press, 1934.

[33] J. H. Flavell, P. I. Botkin, C. L. Fry, J. W. Wright, and P. E. Jarvis, *The development of role ta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in children,* New York: Wiley, 1968.

[34] N. D. Feshbach,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Vol.8)* New York : Academic Press, 1978.

[35] J. Piaget,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London, Kagan Paul Trench, 1932.

[36] R. J. R. Blair, "Responding to the emotions of

others: Dissociating forms of empathy through the study of typical and psychiatric population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Vol.14, No.4, pp.698-718, 2005.

[37] A. Smith, "Cognitive empathy and emotional empathy in human behavior and evolution," Psychological Record, Vol.56, No.1, pp.3-21, 2006.

[38] M. A. Barnett, J. A. Howard, L. M. King, and G. A. Dino, "Helping behavior and the transfer of empath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115, No.1, pp.125-132, 1981.

[39] T. Lipps, "Das Wissen von Fremden Ichen," Psychologischen Untersuchungen, Vol.1, pp.694-722, 1907.

[40] M. L. Hoffman,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social issues,*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76.

[41] R. L. Reniers, R. Corcoran, R. Drake, N. M. Snryane and B. A. Vollm, "The QCAE: A questionnaire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93, No.1, pp.84-95, 2011.

[42] A. P. Goldstein and C. J. Michaels, *Empathy : Development, training, and consequences,* Hillsdale, NJ : Erlbaum, 1985.

[43] C. B. Truax and R. R. Carkhuff,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1967.

[44] C. R. Rogers, "Empathic: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5, pp.2-10, 1975.

[45] R. F. Hasse and D. T. Tepper, "Nonverbal components of empathic communic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19, pp.417-424, 1972.

[46] S. Baron-Cohen, "The extreme-male brain theory of autism,"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Vol.6, pp.248-254, 2002.

[47] A. B. Bakker, H. J. Sixma, and W. Bosveld, "Burnout contagion among general practitione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20, No.1, pp.82-98, 2001.

[48] A. Mehrabian and N. Epstein, "A measurement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Vol.40, pp.525-543, 1972.

[49] J. L. Herman, P. R. Aschbachcr, and L. Winters, *A Practical guide to alternative assessment.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ium Development, 1992.

[50] 박진희, *가족기능평가를 위한 임상평정척도 개발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51] J. L. Fleiss, *The design and analysis of clinical experiments,* New York, NY: John Willy & Sons Inc, 1986.

[52] 탁진국,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1996.

[53] 송보라, 이기학, "한국형 진로신념척도(K-CBI) 개발과 타당화 연구," 진로교육연구, 제23권, 제2호, pp.1-22, 2010.

[54] A. Anastasi, *Psychological Test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8.

[55] 김계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2010.

[56] 홍세희,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1호, pp.161-177, 2000.

[57] 홍정순, *진정성 척도개발 및 상담자의 진정성과 작업동맹간의 관계모형 검증*,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58] R. J. Sternberg,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Vol.93, No.2, pp.119-135, 1986.

[59] C. D. Batson, "How social an animal?: The human capacity for caring," American Psychologist, Vol.45, pp.336-346, 1990.

[60] 권석만,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1997.

[61] 최지영, *성인기 미혼남녀의 자아분화, 자기개방이 이성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62] P. Salovey, J. D. Mayer, S. L. Goleman, C. Turney, and P. Palfai,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Wasington, DC.: APA, 1995.

[63] 이수정, 이훈구,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1권, 제1호, pp.95-116, 1997.

[64] P. Salovey and J. D. Mayer,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9, pp.185-211, 1990.

[65] 장정주, "정서자각과 정서표현이 정서조절과 공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제28권, 제1호, pp.147-170, 2012.

[66] C. Hazan and P. Shaver,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ersonality, Vol.52, No.3, pp.511-524, 1987.

[67] K. Bartholomew and L. M. Horowits,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 A test of a four 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pp.226-224, 1991.

[68] N. L. Collins and S. J. Read,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8, pp.644-633, 1990.

[69] D. Griffin and K. Bartholomew, "Models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Dimen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7, No.3, pp.430-445, 1994.

[70] 장휘숙,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0권, 제2호, pp.123-138, 1997.

저 자 소 개

김 성 지(Song-Ji Kim) 정회원

- 1998년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학사)
- 2000년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상담 및 임상심리학 전공(석사)
- 2009년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상담심리학 전공(박사수료)

<관심분야> : 심리치료, 공감, 상담 수퍼비전

조 성 호(Seong-Ho Cho) 정회원

- 1988년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학사)
- 1992년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석사)
- 1997년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박사)
- 1997년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2011년 ~ 현재 :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 2016년 ~ 현재 : 서울가톨릭상담심리학회 자문위원
- 2017년 ~ 현재 :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장

<관심분야> : 심리치료, 정신분석, 구성주의

부록 1. 타인평정 공감 척도의 평정 지침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 항	문항의 범주	문항의 조작적 정의와 예	문항의 평정기준
공감의 시작	9.	화자는 상대방의 경험을 마음속으로 따라해 봄으로써 그의 생각과 정서를 이해한다.	공감을 하고자 하는 의도	1) 문항 정의: 화자는 상대방의 경험 과정을 적극적으로 상상하려함. 2) 관련 예들: – "그 문 앞에 억지로 다다르면 되게 가슴이 두근거릴 것 같고.. 앞으로의 일들이 예상되면서.. 들어가는 발걸음이 참 무거웠을 것 같아요.."	8. 화자는 상대방의 경험을 **마음속으로 따라해 봄**으로써 그의 생각과 정서를 이해한다. 0점: 화자는 상대방의 경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1점: 화자는 상대방의 경험을 생각해보려고 하는 편은 아니다. 2점: 화자는 상대방의 경험을 어느 정도(상식수준으로) 머릿속으로 그려 보면서 그를 추측한다. 3점: 화자는 상대방의 경험을 동일하게 상상해 봄으로써 그의 생각과 정서를 체험한다. 4점: 화자는 상대방의 경험을 매우 구체적으로 상상하여 적극적으로 모방해보면서 그를 이해한다.
	14.	화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려고 애를 쓴다.	공감을 하고자 하는 의도	1) 문항 정의: 화자가 상대방의 정서에 참여하여 대리적으로 체험하고자 노력함. 2) 관련 예들: – "그런 일을 겪은 게 나라고 생각해보면.."	11. 화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려고 **애를 쓴다.** 0점: 화자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1점: 화자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입장을 생각해보려고 하는 편은 아니다. 2점: 화자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입장을 어느 정도(상식수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한다. 3점: 화자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입장이 되어보려고 상당히 노력한다. 4점: 화자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입장을 체험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여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7.	화자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원인을 알아차린다.	공감을 유발하는 사회적 상황의 지각	1) 문항 정의: 화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겪는 느낌이나 생각들의 원인을 파악함. 2)관련 예들: – "항상 집에 같이 있었다가 없으니 허전함이 클 거고 .."	6. 화자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원인을 알아차린다.** 0점: 화자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의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 1점: 화자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의 원인을 명확히는 모르는 것 같다. 2점: 화자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의 원인을 어느 정도(상식수준으로) 파악하는 것 같다. 3점: 화자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의 원인을 명료하게 알고 있다. 4점: 화자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의 원인을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
	10.	화자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에 반응하려는 동기가 높다.	공감을 하고자 하는 의도	1) 문항 정의: 화자는 상대방의 정서에 동참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려는 경향성이 높음. 2) 관련 예들: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려는 태도가 있음.	9. 화자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에 반응하려는 **동기가 높다.** 0점: 화자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에 반응하거나 관여하려는 태도 및 경향성이 없다. 1점: 화자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에 반응하거나 관여하려는 태도 및 경향성이 적은 편이다. 2점: 화자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에 어느 정도(상식적인 수준에서) 반응하고 있다. 3점: 화자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려고 한다. 4점: 화자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려는 경향성이 높다.

공감의 과정	6.	화자는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해가면서 상대가 어떠했을지 추측한다.	인지적 과정중 추측	1) 문항 정의: 화자는 자신의 입장과 공감 대상자의 입장을 오가며,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그의 상황을 이해함. 2) 관련 예들: – "만약에 내가 이 주인공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 "제가 이런 회사를 안다녀봐서 맞을진 모르겠지만.." , "저라면 안 갔을텐데, 주인공은 관계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겠네요.."	5. 화자는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해가면서** 상대가 어떠했을지 **추측**한다. 0점: 화자는 상대방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을 비교하거나 추측하려하지 않는다. 1점: 화자는 상대방과 자신의 입장을 짧게 비교하지만 이를 통해 상대방을 추측하지는 않는다. 2점: 화자는 상대방과 자신을 어느 정도(상식적인 수준에서) 비교해가며 이해한다. 3점: 화자는 상대방과 자신의 입장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그를 추측한다. 4점: 화자는 상대방과 자신의 입장을 오가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극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통해 그를 추측한다.
	8.	화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신체적 · 감각적으로 반응하거나 묘사한다.	정서적 과정중 신체 반응	1) 문항 정의: 화자는 상대방의 경험을 상상하는 동안, 유사한 정서반응이 초래하는 신체 반응을 경험하거나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함. 2) 관련 예들: –웃음, 헛웃음, 한숨 등 – "답답해요 막 고구마 먹은 것처럼.." , "심장이 덜컥 떨어지는 느낌.." , "저라면 토할 것 같은데.." , "나도 가슴이 다 떨리는데.."	7. 화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신체적 · 감각적으로 반응하거나 묘사**한다. 0점: 화자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신체적 반응이나 감각에 대한 비유적 언급이 전혀 없다. 1점: 화자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신체적 반응이나 감각에 대한 비유적 언급이 미세하게 있다. 2점: 화자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신체적 반응이나 감각에 대한 비유적 언급이 어느 정도(상식수준으로) 있다. 3점: 화자는 상대방의 경험을 상상하는 동안 유사한 정서반응이 초래하는 신체적 반응을 경험하거나 감각적 표현을 상당히 한다. 4점: 화자는 상대방의 경험을 상상하는 동안 유사한 정서반응이 초래하는 신체적 반응을 경험하거나 감각적 표현을 매우 많이 한다.
	12.	화자는 상대방의 감정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정서적 과정중 정서 전염	1) 문항 정의: 화자는 상대방의 정서로 인해 감정에 영향을 받음. 2)관련 예들: – "제가 지금 너무 너무 화가 나는데요.."	10. 화자는 **상대방의 감정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0점: 화자는 상대방의 감정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1점: 화자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긴 하지만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는다. 2점: 화자는 상대방의 감정에 어느 정도(상식적인 수준에서) 영향을 받는다. 3점: 화자는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4점: 화자는 상대방의 감정에 비슷한 감정이나 관련된 감정들을 상당히 경험한다.
	4.	화자는 일시적으로 자신을 상대방인 것처럼 여기고 그의 경험을 상상한다.	인지적 과정중 상상	1) 문항 정의: 화자는 마치 자신이 상대방이 된 것처럼 그의 입장에서 그가 경험한 것들을 상상함. 2) 관련 예들: – "그런 상황이 되면 일단 머리가 멍 하고, '그동안 내가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4. 화자는 일시적으로 **자신을 상대방인 것처럼 여기고 그의 경험을 상상**한다. 0점: 화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떠올리려하지 않는다. 1점: 화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떠올리긴 하지만 자신을 대입해보진 않는다. 2점: 화자는 상대방의 입장에 자신을 어느 정도(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입해본다. 3점: 화자는 마치 자신이 상대방이 된 것처럼 그의 입장에서 그가 경험한 것들을 상상한다. 4점: 화자는 마치 자신이 상대방이 된 것처럼 그의 입장에서 그가 경험한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한다.

공감의 결과	1.	화자는 상대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정서를 느낀다.	정서적 결과중 정서 공유	1) 문항 정의: 화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느꼈던 동일한 혹은 비슷한 감정을 느낌. 2) 관련 예들: – “저도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이럴 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참 비참한데요..”	1. 화자는 상대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정서를 느낀다**. 0점: 화자는 상대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 화자는 상대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감정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2점: 화자는 상대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감정을 조금 느낀다. 3점: 화자는 상대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감정을 상당히 느낀다. 4점: 화자는 상대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감정을 많이 느낀다.
	2.	화자는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한다.	인지적 결과중 정서 이해	1) 문항 정의: 화자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사건 속에서 그가 어떤 감정을 경험했는지 정확히 앎. 2)관련 예들: – “마음에 허탈감이 클 거예요..”,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진짜 슬펐을 것 같아요”	2. 화자는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한다. 0점: 화자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겪었는지 전혀 모른다. 1점: 화자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겪었는지 모르는 것 같다. 2점: 화자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겪었는지 어느 정도(상식수준으로) 안다. 3점: 화자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겪었는지 상당히 인지한다. 4점: 화자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겪었는지 매우 정확히 인지한다.
	3.	화자는 상대방에 대한 염려, 연민 혹은 정서적 유대감을 느낀다.	정서적 결과중 유대감	1) 문항 정의: 화자는 공감 대상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에게 연민이나 동질감을 가짐. 2) 관련 예들: –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3. 화자는 상대방에 대한 **염려, 연민 혹은 정서적 유대감을 느낀다**. 0점: 화자는 상대방과 동질감이나 유대감 및 그에 대한 연민 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 화자는 상대방과 동질감이나 유대감 및 그에 대한 연민 등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2점: 화자는 상대방과 동질감이나 유대감 및 그에 대한 연민 등을 다소 느낀다. 3점: 화자는 상대방과 동질감이나 유대감 및 그에 대한 연민 등을 상당히 느낀다. 4점: 화자는 상대방과 동질감이나 유대감 및 그에 대한 연민 등을 매우 많이 느낀다.